

**CEO 동성**

### 제1회 국토교통부장관배 축구대회 참가



김광재 이사장은 8월 3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본사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국토교통부 장관배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공단 축구팀을 응원했다.

### 포승~평택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 현장 등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8월 30일 포승~평택 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충청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을 고려한 건설계획 및 과잉시설 없는 경제세계를 당부했다.

### 제1회 사랑나눔 바자회 시행

-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8월 29일 임직원과 대전소재 사회적 기업이 동참한 '제1회 사랑나눔 바자회'를 본사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행되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기증한 의류, 서적 등의 생활용품 800여점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각종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바자회 행사장에 대전지역 사회적 기업 등 6곳\*을 위한 생산물품 전시장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바자회 수익금은 추석명절에 대전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행사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기여하며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참여업체: 사회적 기업 ①한울타리 ②산바들 예비 사회적 기업 ③보리와 밀 ④행복한 나눔센터 사회복지기관 ⑤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⑥대전나자렛집

###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품질분임조 3개 팀(역사사랑, 박선희, 해피투게더)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3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모두 '대통령상 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역대 최대인 291개팀, 40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개만족 등에 관한 품질혁신 우수사례를 경쟁하고 공유했다.

자율형식부문의 '강섬유 투입량 최적화로 철도터널 슛크리트 예산절감'은 철도 터널공사 시 터널단면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강섬유 슛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강섬유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존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강섬유 투입량을 40kg/m<sup>3</sup>에서 37kg/m<sup>3</sup>로 최적화(철도노보공사 개정, '13.1.17)함으로써 사업예산 450억을 절감한 사례이다.

또, 6시그마부문의 '철도역사 시설규모 재 산정을 통한 이용자 편의공간 확보'는 역사 운영계획을 고려한 최적화 역사시설 공간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철도역 내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이용자에게 다시 제공함은 물론 공사비 2900만원을 절감한 사례이다.

상생협력부문의 '철도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감소를 위한 상생체계 구축'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도급사에 대위변제 등 불공정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업체로부터 243억원 임금체불을 추석명절 전에 지급토록 하는 한편,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민간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제품 개발 및 국산화로 원가절감 등을 실현한 사례로 3개 팀 모두 '대통령상'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김광재 이사장은 "창조적 사고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품질혁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계기로 앞으로 철도건설 기술을 선도하고 협력사와 상생하는 창의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품질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의선 홍대입구역·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본격 추진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8월 28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사업 지하화로 발생한 지상부지인 홍대입구역(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원 철도시설부지 약 2만800m<sup>2</sup>)과 공덕역(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원 철도시설부지 약 1만5840m<sup>2</sup>)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 조건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과함으로써 연내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철도재정건전화에 통해 공단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대입구역 개발사업 조감도>

공단과 서울시는 철도 부지를 활용한 서울시의 공원조성사업과 공단의 개발사업 인허가에 상호협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경의선의 지상철도 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공덕역 개발사업 조감도>

홍대입구역 개발 사업은 17층 규모로 약 350실의 관광숙박·판매시설이 들어서며, 지역민을 위해 디자인센터·보육센터·일자리지원센터 등의 공익시설(5700m<sup>2</sup>)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덕역 개발사업의 경우는 23층 규모로 약 400실의 호텔과 업무시설·6층 규모의 문화 및 판매시설이 조성되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용주차장과 커뮤니티시설(1710m<sup>2</sup>)은 무상 제공한다.

한편, 경의선 홍대입구역·공덕역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공사 중 연인원 50만 명, 운영 중 연간 약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시설공급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심의 새로운 비즈니스·관광·쇼핑의 특화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30년간 약 2700억원의 점용료 수입을 기대하

### 수인선 철도 화성시 수영리 0.5km구간 지하화 추진

건설본부는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구간(약 510m)을 지하화한다. 본 구간은 당초 지상으로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화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109억원 전액을 화성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지하화를 결정했다.

본부는 지하화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3년 8월 30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 201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수인선은 1995년 12월 폐선 이후 2005년 복선전철 건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수원시와 화성시민들이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제2공구 구간은 착공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본부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지하화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전액을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부담토록하여 만성적인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철도 지상부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본부는 수인선(수원~한대) 사업이 완료되면 1억 약 12만 7000명이 이용함으로써 경기도 서남부지역 개발촉진 및 수원과 화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호남고속 광대레일 본격 부설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8월 31일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 건설을 위해 정읍역을 시작으로 광대레일을 본격적으로 부설한다.

이음매가 없어 안정성이 높고 승차감이 좋지만, 소음은 저감시키는 300m 길이의 광대레일은 총복 오송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제작 후, 전용 열차로 한 번에 26개씩 총 2377개가 내년 4월까지 현장으로 수송된다.

본부는 현장에서 광대레일 사이를 다시 용접하여 고속철도 전 구간이 연결되면, 전차선과 신호시스템, 정거장 등 후속공사와 시운전을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광대레일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희 시설장비사무소장은 "최상의 품질확보와 적기조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간 품질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결함이나 사전에 차단되어 고품질의 광대레일만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된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가 내년말까지 완공되면 용산에서 목포까지의 이동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크게 단축돼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될 것이다.



###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 유휴부지 개발

- Value 엔지니어링, 설계심사에 기술분야 협업 체계 도입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토지활용 가치가 높고 개발일지가 좋은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 유휴부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1-4 일원, 3431m<sup>2</sup>)에 업무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았다.

제안 내용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연면적 3만7579m<sup>2</sup>의 복합시설로, 업무·근린생활·판매·의료·노유자·운동·주차장·교육연구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형성이다. 본부는 대도시 8개역의 유휴철도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 제안을 공모했으나, 인천논현역에 대한 업무시설 개발 제안만 받았다.

본부 관계자는 민간 아이디어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철도자산을 활용한 점용료 수익 창출로 공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도 유휴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